

# 마스크 확보전 치열...졸업식 등 행사 축소

## 우한 폐렴 예방 위한 노력들

마스크·손 세정제 일부 품귀  
가격 인상 등 악덕 상흔 기승  
총선 후보들 악수·대화 자제  
중국 간병인·환자 접촉 금지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에 광주·전남지역의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급기야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우한 폐렴 예방 위해 학교 졸업식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축소하고, 악수를 자제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들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광주·전남지역 마트와 약국 등에 따르면 설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스크 등을 찾는 이들이 거의 없었으나, 지난 27일 국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이후 마트·약국에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이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일부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광주·전남 7개 이마트에서의 마스크 매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뛰었다. 손 소독제는 2배, 체온계는 무려 11배 이상 올랐다.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중 약국과 마트 등에서 마스크 물량이 바닥 나면서 일부 온라인몰 등을 중심으로 마스크 가격이 대폭 인상되는 등 악덕 상흔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부 온라인 판매업자가 마스크 가격을 급격히 올려 판매하는 것을 놓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설 연휴 이후 지난 28일부터 마스크 가격 폭등, 주문 취소, 품질 건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각각 16건, 77건 등 총 83건이 접수됐다.

주부 김인숙(아·49·광주시 서구)씨는 “온라인몰에서 평소 1장 500원 하던 일회



손 씻기 이렇게 30일 오전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손 씻기를 가르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용마스크를 지난 29일에는 무려 4배나 비싼 2000원을 주고 구매했다”며 “저렴하게 올라온 마스크를 운 좋게 찾아도 구매 취소를 당하기 일쑤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윤추구에만 집착하는 업체의 상술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우한 폐렴 사태 전보다)마스크와 손세정제 판매량이 최소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9일에는 한 중국 여행객이 한번에 500개 구매하기도 했다”며 “우한 폐렴 발병 전에는 50개 들이 1박스를 1만원에 판매했지만 지금은 도매가가 올라 1만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덕마스크 판매업자들의 판매를 중지시켜주세요”는 정원금이 올라오기

도 했다. 청원자는 “전날 구매한 마스크가 업체 품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배송 취소 당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판매자, 같은 업체가 타 오픈마켓에서 5배 높은 가격으로(마스크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악덕상흔속에서도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광주에서 치러진 중·고교 14곳의 졸업식도 모두 교실에서 진행됐다. 우한 폐렴을 의식해 대규모 인원이 강당이나 체육관에 모이는 대신 각 교실에서 조용하게 열린 것이다.

지역내 총선 후보자들도 우한 폐렴 확산방지를 위해 명함배포, 악수, 대화를 자

제하며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시민행복발전소(소장 류동훈)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 총선 후보자 악수 선거 금지 등 자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시립요양병원 등 광주지역 요양병원들은 최근 중국 국적의 간병인과 환자의 접촉을 잠정 중단시켰다.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둔 박준석(62·광주시 북구)씨는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중국인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 연휴전 미리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미세입자 94% 이상 차단 가능한 'KF94'·'KF99' 등급 마스크 써야

### 마스크 착용 어떻게

‘우한 폐렴’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KF94’, ‘KF99’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게 좋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고 있다. 이번 우한 폐렴과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KF94’, ‘KF99’ 등급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국내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가 표시돼 있으며,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

자를 80% 이상 차단하고,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하고, 황사와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뒤 숨을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안쪽으로 들어갔다 내릴 때는 턱 쪽으로 공기가 나가면 잘 착용된 것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해남 비닐하우스서 염산 200 l 유출...인명피해 없어

30일 오전 8시 40분께 해남군 옥천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염산 200 l가 유출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와 하천 유출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흡착포와 모래 등으로 오후 1시께 방제작업을 마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염산 보관용 탱크 5기 중 4기에서 밸브 등이 손상되면서 염산이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비닐하우스 주인 A씨는 기계 세척 등을 위해 한 달 전부터 염산을 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A씨가 바닷가 김 양식장에 무기산을 판매하려 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로 염산을 보관해 온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교회 창고 방화·신도 위협 30대, 정신병원 입원 조치

광주광산경찰은 30일 교회창고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신도를 위협한 A(32)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집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한 교회 창고에 들어가 라이터로 목재 구조물에 불을 지냈다. A씨는 이후 교회 신도 B(51)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상제님이

시켜 이곳에 왔다. 이 곳은 내 집이니 내 집을 찾으러 왔다”며 위협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형질 수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삼자 정신병원에 입원조치했다. A씨는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을 이따로 들이받아 공무원행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한국철도 광주본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총력

### 지역 비상대책본부 설치

한국철도 광주본부는 30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재난경보가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본부는 광주송정역 등 역사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운행 전·후 매일 1회 이상 열차 소독에 나서고 있다.

직원들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방 운영 중이던 매표창구를 폐쇄형으로 운영한다.

김진준 한국철도 광주본부장은 “광주시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하고 빠른 발권을 위해 자동발매기 이용을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환경부, 바퀴·너구리 등 숙주 의심 야생동물 수입 중지

환경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 가능성 차단을 위해 중국 야생동물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반입금지 동물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중간 숙주 개체로 유력시 되는 ▲박쥐류 ▲뱀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 등이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동물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

될 때까지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환경부는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통관현장에 파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하는 한편 올해 개원 예정인 광주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이웃과 술 마시다 망치 휘두른 50대 “왜 그랬는지 기억 안나”



○·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망치를 휘두른 50대가 특수상해 혐의로

○· A씨는 B씨를 포함한 이웃 3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관계자는 “A씨가 공구함에 있던 망치를 꺼내 휘두른 기억은 나지만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과거에도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에게 망치를 휘두른 50대가 특수상해 혐의로

○· A씨는 B씨를 포함한 이웃 3명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관계자는 “A씨가 공구함에 있던 망치를 꺼내 휘두른 기억은 나지만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A씨는 과거에도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SM 그룹 에서 역량있는 분을 모십니다.

- 모집부서 및 응시자격

모집구분	인원	담당 업무 및 자격요건	근무지
임원 (본사)	경력 ○명	- 건설사업 전반을 리드하면서 사업 수주 및 인허가 업무추진이 가능하신분 (주택 건축, 공공사업 유경력자) - 건설업 리스크관리와 사업분석 및 원가관리가 가능하신분 - 2,3군 건설회사 본부장 출신 우대	광주

- 제출서류

  - 1) 입사지원서(개별양식)  
※ 최종 직위 및 연봉 기재
  - 2) 자기소개서(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접수기간 및 방법

  - 1) 서류접수 : 2020년 1월 31일 ~ 2월 7일(금요일) 도착분에 한함
  - 2)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sam26486@hanmail.net)
  - 3)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21(궁동) 3층 (주)삼라
  - 4) 문의처 : ☎. 062-233-7733 / 기획총괄부

- 기타사항

  - 1)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 SM | 취 삼 라